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八面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米價의將來와 그對策

一

去六日 東京의 正米市勢가 米穀法出動의 持越米價를 低廳하기시작한以來 오늘에이르기까지 그落勢는 좀처럼멈치지안는다 農林省에서는 아즉 買上을回避하고 五十萬石의買換만을發表하얏스나 그것은도리어 買上期待와어그러저 市場의人氣를 一層惡化시기엇다 今番의米價低落이 一時的現象이냐하면 決코그러치못하니첫재는 端境期持越米의過剩과둘재는 今年豐作의 豫想으로외 今後의米價는 昂騰할래야 昂騰할길이업다 前番의在米調査가 例年보담 아모리嚴格코正確하다고하더라도 一千萬石이넘는數字에는 例年보담持越의激增을 意味치안할수업스며 아즉지의形勢는 今年의稻作도 海히順調로 進行되는터인즉意外의天災地變이襲來키以前 豐作을 豫想할수잇다 이와가튼形勢아래 米價는 떨어지는것으로 今秋收穫期에 다다라는 米穀洪水아래 米穀價暴落을보게될는지도 모른다 昨臘以來 日本의物價가 오르기시작한다그하야도 農産物은 工産物보담 昂騰率이아조나저 所謂剪刀狀價格差아래 農民의苦痛은 적지안혼바 지금萬一米價가暴落되고보면 그價格差는一層擴大되야 農民의生活은 竿頭의進一步를 免치못한다.

二

現在의米價低落은 端境期의 米價高를 겨냥하고잇든 大地主나商人들의 損害에 지나지안는다 農民의 生活에잇서서는 아모런影響도 미치지못할것이 事實이다 그러나今秋의米價는 장차 어찌될것인가? 우리의最大關心事는 지금부터도 여긔와서노히어잇는것이니 農民의生活을 爲하야는 政府로서도 여긔對하야미리부터一定한對策을세우지안하면안될것이다 勿論政府에서는 米穀統制法이잇서 買上出動으로 그價格을調節케되는것인즉 今番에 買上을忌避하는것도 될수잇스면 今秋까지기다려 農民에게 直接利害가잇는 米價를調節하려는 心算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想像되는 米穀의大洪水는 米穀統制法에依한買上으로서도 調節이不可能하리라고보임으로서 農林省에서는昭和五年에잇서와가치 米의海外輸出을 圖하야거긔對한方策을方今調査中이라고한다 昭和五年의輸出米는 百六十一萬餘石인대 지금에이르러는 果然얼마만한輸出을 보게될것인지 또는昭和五年度와現在의米價에는서로高下의差異가 甚하대果然어떠한價格으로써 輸出될도모하라는지 農林當局의 調査를기다리지안하면 알수업는일이다 그러나 米에對하야는 海外市場이 本來狹小한데다가 高價의日本米로서는 더구나海外市場이거의杜塞되야잇는터가아닌가? 그數量도 昭和五年度以上을넘기어렵고 그價格도現在보담低廉한價格으로써만 오즉可能할것이다 海外輸出로써唯一의 對策을삼는다면 큰企待를가지기어렵다

三

朝鮮米는 다 아는바와가치 日本內地가唯一의 市場이다 日本內米穀의 生産過剩은 곳 朝鮮內米穀의 生産過剩으로 나타난다 지금日本米에 對해서는 政府의對策이서지안한以上 朝鮮米에對한 總督府의對策은 勿論섯슬리가업다 아니日本米의生産過剩으로因하야 日本內市場의朝鮮米壓迫은 一層激化할것으로 朝鮮米는 二重三重의困境에빠지게된다 總督府當局者로서는 여긔對하야 어떠라고생각하는가? 總督府의米穀政策은 政府의그것에追隨함을免할수엇지만 朝鮮의特殊한事情으로보아 可能한程度까지는 總督府로서 獨自的政策을 取함이必要하다 모든것을 오즉政府로써만 寄하야 가만히안저잇슬수는업는일이다

간듸氏會見要求를 印度總督이再拒絶
不服從運動放棄를前提로
和平交涉은依然難關

【聯合푸나十八日發】 英印抗爭의 和解解決를期하고 總督『웰링톤』卿에會見를要請하야 一次拒絶를當한『깐듸』는十七日總督에게 電報로거듭會見을申請한바 總督은依然先決條件으로非軍事不服從運動을放棄하라고 要求하면서 會見拒否를返電하엿다 右總督의頑强한態度로印度政廳과 國民會議派와의和平交涉은 果然重大한難關에逢着하게되엿는데 國民會議派陣營內에는非軍事不服從運動放棄를主張하는機運이자못濃厚하게되엿다

上海의國際反帝大會 反戰紀念日에開會
會議終了後一行華北視察
右翼系妨害策動猛烈

【上海發電】 反帝國主義同盟 國際大會가 反戰極東大會와합께當地에서開催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그開催地點에對하야는 그籌備役인中國側各種急進團體에서는 最初華界로할豫定이엇스나 反動團體와右翼系其他反對派의策動과 테로行動을考慮하야 最近에至하야는佛租界方面에서開催될것이 大槪確定된모양이다 그리고이會議의重要人物인『앙리 발뷔스』와『되오도어,드라이서』兩人은 現在當地에向하는旅路에서조곰遲滯된事情이생긴關係와 또이會議를더욱意義잇게 發揚하기爲하야 本月中旬의豫定을變更하고 八月一日의國際反戰데이날에開會式을하기로 決定되엿는바 來會하엿든各國代表는會議後一團이되여華北狀勢視察을行하리라한다 또主催團體의一部인中國領土保障同盟에서는一行을歡迎키爲하야 左記와如한激烈한歡迎宣傳擲文을이미撒布하얏다(內容略)

日蘇間經濟關係의 緊密策考究要請
蘇聯外務次長提言

【電通東京十八日發】 十七日在莫斯科太田大使로부터外務省에到達한報告에依하면 十五日太田大使가 蘇聯外務次長『쏘코르니코프』氏와 會談할때『쏘』氏는 太田大使에對하야日蘇兩國間의經濟關係를一層密接케하기爲하야 適當한方策을 考究하기를바란다고 한데對하야 太田大使도其趣旨에同意한다는뜻을表明하고考慮하기를言約하엿는데通商條約締結과가튼 具體的意見은交換하지안엇다

蘇聯提議와 外務當局의見解

【電通東京十八日發】 十五日蘇聯外務次長『쏘코르니코프』氏가太田駐露大使에對하야 通商促進을爲하야 어떠한具體的方策을 講究하기를 申込한데對하야外務當局은 如左한見解를表明하엿다

日蘇間에 通商條約을締結하려하는希望은 蘇聯側이年來持續하고잇는바로 一九二八年當時의駐日蘇聯大使『토로야노프스키』氏가 田中外相에게 提議하엿고 又前蘇聯通商代表『아니키에프』氏도 其希望을 開陳한일이잇엇다 又『모스크바』에서도 駐露日大使에對하야 當時의極東部長『카라한』氏로부터 通商條約締結을 申出한일이잇다 當時는 北洋漁業問題로日蘇間에 紛糾가잇엇음으로 條約締結보다도 細目의商取引의實質的 商取引決定을하는것이 有利하다는意見이强하게 主張된結果 蘇聯側에對하여서는 日蘇間에는임이北京基本條約이 締結되여잇어通商條約締結은 아직其機가안이라는旨를對答하야 그申出을拒絶하고잇엇다 그런데 最近北洋漁業問題에 一段落이되엿음으로 日蘇間에圓滿한協定이 成立되엇을卽時 『카라한』氏에바귀인 極東部長『쏘코르니코프』氏가有力한財政家로 通商關係에多大한關心을가지고잇음으로 同氏로부터 太田大使에게 새로提議가된것이라고信한다 日本으로서는 아직이러한情報연으로는 何等考慮하기에이르지안엇다

定例閣議

【電通東京十八日發】 十八日의閣議는午前十一時十分首相官邸에開會(高橋、三土兩相缺席) 먼저永井拓相으로부터濠洲의排日이依然不絕한旨日濠汽船의例에依하야報告하고다음內田外相으로부터『아프가니스탄』公使派遣에對하야『아그레만』을求하얏는故로政府는此를受諾할方針으로調査中이라고報告하고 大角海相으로부터第二孝平丸事件의外交解決을促進하고십흔 旨內田外相에게要求하고 다음小山法相으로부터 最近獨逸한某專門校敎授의例에徵하야도 海外留學生에對하야도 充分注意하기를希望한다 라고述하고午後零時十分散會하얏다

支離한日印交涉!
英本國、憲法上問題를방패로 誠意잇는回答을意識的回避
日本側遂印棉不買强行?

【電通東京十八日發】 日印通商問題에關하야 外務省及商工省에서는『심라』의日印兩國直接交涉에依하야 圓滿한解決를期待하고過般來日本政府代表와交涉對策을決定하고 一日이라도速히日印交涉을開始할準備를進行하고잇는바 右交涉에對하야英國政府로부터 印度當局에附與할外交交涉權問題에關하여는英國이自國의憲法上 問題를방패로依然誠意잇는回答을주지안음으로今日에이러는急速한交涉을開始할希望도거이消失되엿슴으로外務當局도자못焦慮하고잇는데右는八月十四日부터 九月二十日外지印度立法議會가開會됨으로事實上日印交涉을 行하기는困難하게된結果로實質的交涉은 九月二十日부터十月十日사이 二十日間에 進行할수밧게업게되엿다 日本政府가크게讓步를한것도必然이라고는 英印當局의態度 惡意잇는企圖에서나온것이라는것을 겨우看破하게되엿다 이對策에對하야外務商工兩當局은 愼重講究하고잇는데 民間當業者의印棉不買의强硬한態度로 印度當局의反省을促할수밧게업다고 觀測되여잇다

施政研究會開會

七月十八、九兩日의中樞院會議에繼續하야 二十日午前九時부터中樞院에서第一回施政研究會를開催하기로되여 同會를經濟産業 學藝 社會 制度의五部에分하야同日은委員長各部의部長及主査를 互選하고이에넘어研究項目決定에드러갈豫定이다

比律賓獨立法案 受諾空氣濃厚
十年後完全獨立?

【聯合마닐라十八日發】 比島獨立法案의受諾與否를 審議할比島會議는 十七日開會되여 直時二十日外지休會에入하엿는데 其間議會의領袖間에 자조私的會談이行하고잇다 一月十七日以後 一個年以內에 比島議會가 同法案受諾을表明하면 比島는十個年의期限으로써 드듸어獨立國이되기로되엿는데 今次의議會는 比島獨立案의 最終決定을行할會議로서 極히重大視되여잇는만큼 各派가다 議會討議前에私的會談으로 大體的決定에 到達하려는것으로 議會分野測定에依하면 議會方面에서도 比際議會改造要請의條件을附하야 獨立法案을受諾할空氣가 漸次有力케되고잇다

中國援助委員會는 國際共管의前兆?
宋子文의活動結果如此

【聯合東京十八日發】 巴里에서宋子文을마저가지고十八日國際聯盟中國援助特別委員會를開催할터인데議題에는中國에派遣할專門技術官을任命하야中國과聯盟의協力方式 兩者의聯絡員의權限等을包含하엿는데가장注目되는것은 中國內地의再建을目的으로한中國數省의改造事業에對하야聯盟의援助를求하려고하는것으로 日本當局에서는此는中國을國際管理로引導하는第一步라고보는同時에聯盟內의中國通과宋子文等人物배문에 中國이漸次로國際管理로誘導되는不祥事로中國大衆을爲하야遺憾으로엑이는바이다

中樞院會議
十八日부터二日間開會

中樞院第十四回會議는十八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二日間開會되엿다 改發의岐路에서各方面으로부터論議의中心되여잇드니만치 出席率은 未曾有의成績으로總員七十一名의議官中 不過五名의缺席者를보앗슴뿐으로朴泳孝侯副議長以下顧問、中央、地方參議六十六名이出席하고 宇垣總督臨席下에牛島中樞院書記官長、松本同書記官、各局長官房課長外 篠田李王職長官、李恒九次官도 列席하야 今井田議長統裁로 定刻開會가 宣言되엿다 먼저宇垣總督으로부터 別項要旨의 訓示가 잇엇고 이에니여用中外事課長으로부터 在滿朝鮮人施設及滿洲事變避難朝鮮人措置 牛島內務局長으로부터 南朝鮮水害 道制 昭和八年度土木事業等所管事項에對하야 各히演述하는바잇은후 正午一次休憩하고 午後一時부터 再開午前에 繼續하야 局長의演述이잇고諮問事項에들어가 會議는本論으로드러갓다

矢鍋殖銀理事辭任

일즉부터辭表를提出中이엇든殖産銀行理事矢鍋永三郞氏는十八日附로써辭任되엿다

馮反蔣氣勢보담도 抗日態度를高揚
全中國의同情集中코저
東北四省奪回通電

【聯合奉天十八日發】 張家口에殺倒하려는討馮軍의勢力이强大하야到底히對抗할수업다고본馮玉祥은共産黨方面의意見을밧어서從來의反蔣態度를改하고全國民의同情을得코저抗日만에專念함을誓하는左記抗日通電을十四日附로써全國에發하얏다

五月以來余는抗日軍을組織하고少數兵力으로써日滿軍을擊退하고孤軍奮鬪드듸여多倫을占領함에至하고現在는드듸여察哈爾一帶의失地回復을完成하얏다今後我軍의向할바는東北四省의失地回復이다諸兄은即時塘沽에在한日中停戰協定을破棄하야抗日軍을起할것이다萬一이에應치안으면余는獨力으로써이回復에當할터이다

右通電內容을보면反蔣의字句는하나도업고反日을主眼으로한點이歷然한馮의轉向을보면何應欽黃郛의提示한抗日軍事行動停止勸告에應할는지안흘는지今後의態度가各方面에서非常히注目되여잇다

四國協約調印에 伊首相態度表明

【電通巴里十七日發】 英佛獨伊四國協力條約은 十五日正式調印을完了하엿는데 右調印前『뭇소리니』首相은駐伊佛大使『쥬부네』氏에對하야 左의保障을與하엿다

一、伊太利는一九三一年에締結한獨逸墺太利關稅同盟에反對한다
二、伊太利는領土的要求를갓지안는다
三、『벨사이유』講和條約의領土에關한修正에對하여는時間이問題를解決할것이다
四、軍縮問題에對하여는伊太利는佛國이提唱하는一切武器의國際管理及三縮小國의軍備를縮小하는案을支持한다

夕刊後의市況
大阪短期 鼎終氣配

大新	一一四二〇(二〇高)
鐘新	一〇七〇〇(一〇低)
日產	八四三〇(一〇低)
東新	一九三〇〇(九〇高)

横濱生糸

引	八八九〇〇
先當	八八八〇〇

墺洪合倂問題로 伊獨間에衝突形勢

란紙羅馬特派員은 伊獨關係의緊張을報道하야 早晩兩國關係의惡化는 表面化할것이다 獨逸의『콤프니켄』에對한羅馬市民의反感은極度에達하여잇다 伊太利는 莫斯科와親善關係設定에努力하고오는바 英國은如何히表面을糊塗하여도 伊太利에好意를가진것으로는 생각되지안는다 뿐만안니라『파시스트』의墺國에對한脅威는 一層兩國關係를惡化할것이며 伊太利는獨逸과도墺洪國合倂問題로衝突할것이라고 報道하엿다

【海外漫畵】 힛틀러流의獨裁政治 (씩라우다紙)

社長의任에就하면서
方應謨

今番 本社長 曹晩植氏가 一身上의 事情에依하야 社長의職을 辭하게됨에 對하야 不肖가 그後任에 就하게된것은 昨日의 社告와如합니다。

元來 曹先生으로 말슴하면 學과 德이 아울러 兼備할뿐만 아니라 社長의職에 게시는 동안에 本社를 爲하야 여러가지로 苦心하시고 盡力하셨습니다 그苦心하시고 盡力하신것이 虛ㅅ되지 아니하야 本社는 株式會社의 組織이 完了되야 至今이야말로 經營의 基礎가 磐石과가치 鞏固하게 되엇스니 先生을 爲하야 그勞를 多타고 하는배외다。

此際에 先生께서 社長의 職을 辭하심은 비록 先生의 一身上 事情으로 實로 不得已한 일이나 그러나 本社를 爲하야는 遺憾千萬의 일이외다。

그런데 不肖가 그後任을 辱되게함에對하야는 衷心으로 恐懼함을 不己하는바외다 本來 不肖는 才短學淺 할뿐만아니라 直接으로 局에 當함은 本懷로 하는者ㅣ 아니외다。

그러나 周圍의 事情이 이러케 된以上에는 不肖로서는 오직 誠意를 다할뿐이오 努力을 다할따름이외다 그뿐만아니라 元來 本社에는 안으로 經驗과 才幹을具備한 社員一同의 奮鬪가잇고 밧그로 二千萬 兄弟姉妹의 熱烈한 援護과 支持가 잇스니 本報의 進運은 그集團力에 依함이 個人의 힘에依함보다 큼을알므로 스스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런즉 兄弟姉妹여 오직 愛護하시고 指導하시고 鞭韃하소서 이것이 不肖의 唯一한 希望이오 또한 唯一한 自信이외다。

文化의어머니 『카이로』訪問 (四)
【나포리】에서 李順鐸
【世界一週通信】

이것은勿論不逞者의 闖入을 防遏하기爲하야 故意로이러케 設計한것이다 우리는 案內人 先頭에세우고 入口라하는대로 부러 드러가서 或은直立하야 或은匹伏하야 或은直行或은斜登하엿다 近日에는 前日과달나서內部에는 드문드문電氣를 밝혓슴으로 燭은 不必要하다 한참을나간즉 所謂帝王室이라는廣房이엇다 四壁은全部光澤잇는花崗石으로되엿스며 이로부터 塔의外部外지 穴을通하야 換氣法이講究되어잇다 案內人의말을드른즉 이廣房이 이 金字塔의 正中央部에 該當하다고한다 이로부터以上은 아즉은올나갈수가업다 여긔外지도 攀登하기가容易한것이아니다 九龍淵에서 上八潭을나가는길을想像하면 과히틀니지안타 이廣房에는所謂『쿠푸』王의花崗石의石棺이잇는대 棺蓋도업는空棺이다 엇던學者는말하되 어느때墓賊에게掠奪되여서 王의木乃伊外지도 가저갓다하고 또엇던學者는말하되이廣房은 王을安裝한 眞實한房이아니오 이房은오즉 墓賊을 속이기 爲한 거짓房이고 참房은 아즉發見되지 못한것이라한다 그어느說이 올흔지는 모르되 萬一後者의說이올타고 하면 『쿠푸』王의木乃伊는 아즉도이안에서安眠하야 靈魂의 蘇生될날을 기다리고잇슬것이다 다른길로 한참내려가즉王妃의房이잇는대 여긔는棺도업다 化粧室도달니고 換氣裝置도되여잇다 房의結構는 王의房과가트다 興味잇는 이『수거기』의岩窟에서나와서 우리는 이近傍에잇는 有名한『스핑스』로 발을돌녓다

『스핑스』(Sphinx)는 即人面獅子像이다 어느 時代 누가建造한것인지는 아즉가지 아무도 確實히는 모르나 紀元 約三千年前부터存在햇다는 것만은 考古學者의硏究로밝혀젓다 埃及人들은 人首는智德의表徵이오 獸身은體力의表徵이라하야埃及國民의理想을 나타내는建造物이라고밋는다한다 其高가六十六呎 其長이百八十七呎으로서 오즉一箇의巨大한 天然石塊에彫刻되엿다 建造當時에는 頭上에는冠等의裝飾이 잇섯고 顔面에는 朱의染色을 한것인대 今日에는 부러진冠等의裝飾物은 地面에片片히흣허저잇고 朱色의痕跡과 그鼻는 第十五世紀末葉으로부터 十六世紀 初外지 埃及을 支配하든 標悍하기로 有名한 『마마룩스』族(Mamalukes)의 射擊의標的이되여서 업서저버렷다 그얼굴은 婦人狀이오그 입에는微笑를띄우고 그눈은正東을凝視하고잇다 이는太陽神의崇拜하는表徵이다 이것이야말로 또한歷史上의謎이다 이 附近에서는 요사이도늘古蹟을 發掘한다

이것들을求景하고 우리는旅館으로드러가서『런치』를畢하고 午後에는 數三의有名한回回敎寺院에參詣햇다 『가이로』에는大小三百五十의 寺院이잇다는데 그圓形『집웅』(Roof)과 그우에聳峙한尖塔은『가이로』市에 特有한光景을나타낸다 그中가장代表되는寺院은『설탄·사산』(Sultan Sassan) Morque 이다 그規模의宏壯 象牙와赤檀을使用한 그彫刻術美術의奇妙精巧 그結構의層疊은 到底히 形容할수업다 그建設者는第十四世紀中葉(一三五六——一三五九)의『핫산』王인데 이中央에는王의墓가잇고 그안에는木乃伊가잇다 傳說에依하면王은 埃工後그複製를禁하기爲하야이 建築技師『시리아』人의손을切斷해버렷다고한다 建築石材는全部『피라밋』에서 가저왓스며『사라센』建築의 代表物이다 寺院의外部는 드문드문 奈巴翁의大砲알에마진 傷處가잇는데 그것은傷했스되 歷史의자취를보는것도 또한 한가지興味잇는 다이곳에도『라파이』(Rafaee) Morque가또한 그宏壯과華麗로자랑한다

이Morque의東南에는 가장히有名한『시타델』(Citadel)即 城壘가잇다 이城壘는千百六十六年에 埃及의統治者이든『사라딘』(Saladin)의築造한것으로서 完成하기에三十年의歲月을要햇스며 그材料亦『기자』의『피라밋』으로부터 가저온石材이다 爾來數百年間 이城壘는 그城主를中心하야 여러가지의 悲劇이 만히생겻다 現埃及王朝의 始祖 『모하멧·아리』(Mohamed Aly)가 土廷의埃及太守로잇슬때에 千八百十一年에 『마마룩스』族의酋長等四百七十餘名을 茶宴에招待한다고誘해가지고 一時에驅討한곳도이곳이다『마마룩스』族은當時 埃及의實權을掌握한慓悍無比한 土族인데彼等은土廷의命을順從하지아니함으로 太守『아리』는 土廷의命을밧어 그勦滅을圖謀한것이다 即어떤날 彼等은茶會에請하야 城中에너어돗코左右懸崖 陜隘한通路에서挾擊하야 一擧에皆殺하야버린것이다 이城壁內에는『모하멧·아리』의建立한Morque와 그宮殿이엇는데 全部雪花石膏로裝飾한 華麗壯大한Morque이다따라서 一名『아라바스터』(Alabaster) Morque라고도 부른다 이집은 千八百二十四年에 『아리』가始作하야千八百五十七年에『사이드·파샤』(Said Pasha)가 完成햇는데 그建築技師는 希臘人이다 이안에는巨大한『아리』의棺이잇고 그압에는 그의木乃伊가잇다 그리고그 집웅에 옷독소슨長尖塔은길고 美麗하게 中空에소사잇어 『자이로』全部를號令한다 이東側에는亞剌比亞式의 樓閣塔이잇는데 그안에는 彼七月革命에 王位에登極하야 『King of the French』(佛國民의王)라稱하든『루이·필립』(Luis Philip)이寄附한時計가드려잇다

우리는 여긔서 다시도라서서 繁華한商街를觀察한後今日의旅程을맛치고 翌日에는모커嶺『가이로』를訪問하엿다 이在埃及의首府『가이로』는 中世以降의都市로서 今日에는沙漠中에서 그廢墟를볼수업는『멤피스』(Memphis)『헤리오포리스』(Heliopolis)等의古都市에比하면新都市이다

◇寫眞은카이로의埃及國會堂

今番南朝鮮水害 復舊大方針決定

道路水組等所要六百四十萬圓

救窮、國庫로一部充當

남조선지방 수해의응급적 복구대책에대하야는 십칠일 총독부관계국수뇌자회의에서협의한결과대체의방침을결정하얏다즉수해로타격바든수리조합은이십삼개조합(慶南十六、慶北一、全北三、全南一、忠南二)의 근본적 복구비는 총액 삼백만원이나 되는바 응급적복구비로는 약사십만원을요할 모양으로 수리조합자신의손으로 우선적당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야 사십만원의반액은 국고보조 남아지이십만원은 령시융자(融資)로 충당하기로 되엿다 또일반토목사업의 하천(河川)도로(道路) 교량(橋梁)의 피해는 각도합하야 총액륙백만원, 경남이백팔십구만 경북일백사십만원 전남 일백이십륙만원, 전북삼십륙만원, 충남이십륙만원)에달하얏는데 이응급복구책으로서는 본년도 궁민구제사업비(窮民救濟事業費)를충당하야 지방청이 긴책임으로써복구하기로하고 이이상더 결함이날때에는 제이차 궁민구제사업의 증액을요구하기로되엇다

酷暑蒸炎을冒行함

本社救護班各隊消息

嗚呼、惻氣逼人! 伽倻는宛如地獄

이中에서呻吟하는罹災同胞 百五十戶一千人救療

【咸安에서特派員文錫俊發電】 십륙、십칠량일간함안(咸安)에서본보지국원네분과함께 아츰여덜시부터 밤아홉시까지 백도에갓가운더위와싸우고소낙비를마자가며 가야(伽倻)부근 열세동리를 편답하야 아직아무구호반도 온일이업는 가가호호를방문하야 백오십호 천명가량의리재민을 구료하엿는데 가야일대는참으로 생지옥을 만들어다수의리재민은 병든몸과 주린창자로그참혹한 형상은 눈으로참아 볼수업스며 입으로 헤아릴수업다 그들은밤문안우리를 눈물로 마자주며 어느때또다시 만날런지작별을 앗김에 우리는귀모르게눈물을흘리엿다 십팔일부터 계속하야 사흘동안 각지방을순회하야 구료에 진력할예정이다

약삼백호가량되는데 그중 십오호를케하고는거의전부가 동척(東拓)식은(殖銀)등 대재벌의농장에서 버려먹는 소작인이다 그들의대부분은 홍수가옥을 류실하고 훗근가옥이문허저서 논둑우에 림시로초막을짓고 살아가는데그형편은 참아볼수업다 본사구호반은 그중 이백륙십삼명환자에게 시료하고 일백이십명에게 금품을는아주고 오후에는 즉시 차남면 명례(明禮)바면을 도라왓다

飲料水不適 染病者續發

昌原서七百名救療

【馬山支局特電】 본사구호반삼반은 십칠일오전 아홉시에창원군북면(北面)으로의료반을대동하고 출동하야 피해가심한신촌(新村)한부락 팔십륙호가 전멸한 신천(新川) 시장과 아홉호가 전멸한마산(馬山)중앙(中央) 북계(北桂) 외산(外山) 하천(下川) 분자(分子) 장암(長岩)의 아홉부락 일천백사십팔호의 칠백여명리재민에게 위문금과약품을 논아주엇다 백도에 갓가운더위에다 음료수까지 락동강(洛東江)의흐린물을먹는 형편으로 배알는이가만코 적리(赤痢)까지떠지여 교통이 불편한곳임으로 의약을 구할수업서 중병환자도 적지안어 본사구호대에게 눈물흘려감사하는 형상은 참아눈으로볼수가업스며 호근일대는 오천여정보가 전멸하야 이천여주민의생로가 막연하다 구호반은일로 동면(東面)으로향하얏다

八村救療 夜九時까지

【鎭永支局長發】 본사총무국 차장문석준(文錫俊)씨는 십륙일에는 본사 차로 하안의녕방지로 출발하고진영부내만은 진영지국원일동은 백도가갓가운 염천도불구하고 대를지여 진영면일대에 구호를밧지 아니하면아니될만한 피란민 일백이십여명과 설사병으로서 고통을밧고잇는 피란민 사십여명을구료하엿는데 이날의 구호밧은 팔개촌이나된다 일반리재민은 눈물겨운어조로 감사의뜻을표하엿다 밤원은 해는이미너머가고 캄캄한밤 아홉시경에야 도라왓다

住居일흔災民 畦畔에仕接

上南面災民의苦境 六十餘名을施療

【密陽에서特派員金敎英發】 령남(嶺南)수재 본사구호반 조용숙(趙鏞肅)윤태선(尹泰善)정광호(鄭光浩)의사 문계수(文桂守)김수렬(金洙烈)씨등과 및 나(金特派員) 일행은 십륙일삼랑진(三浪津)을 떠나 도보로상남면 외산리(上南面·外山里)에도착하엿다 외산리라는 이번수재가 가장심하엿든곳이다 인가는

驟雨를마즈며 踏破石逕數十里

三百災民을救護

【梁山에서特派員金榮殷發】 십륙일、십칠량일에 량산(梁山)지국원 두사람과가티 구십삼도나되는 염천과싸우며 두서너시간식나리는 소낙비를 무릅쓰고 사오십리식 도보하야 동면금산리(東面錦山里)하북면 순지리(下北面蓴池里) 하서면 화제리(下西面花濟里)토교리(土橋里) 신주막(新酒幕)원동(院洞)룡당(龍塘)일대의 오백여호가가호호를방문하야 삼백여명에게 약품을 나노아주고 이백오십여명에게 금품을분라주엇는데 그들은 감격에넘쳐 눈물로마지하엿다 특히이에감격하야 량산읍내 조선인 경영의 량산자동차조합에서는 본사구호반에게 자동차를무료로케공하야주엇다

충추는妖魔 (3)

國際「스파이」秘話

犬齒에報告藏置書 一回三千語를秘送

「마타하리」對抗한聯合側女偵의敏腕

世界에亂舞하는厥女들의豪膽

아라스怪手腕에 獨軍全滅十八回

『루이스·또베치』부인은 알반쥐으로독아리스、佛보아늘라는 이름을가지고 역시 서반아의수부『마드릿드』에서활동하얏섯다 독일루군청의 정보국원『젤락스파우만』대좌(大佐)는 궐녀에게 대하야 대적(對敵)의 지위에잇스면서도 입에충이 마르리만큼 추찬을 앗기지아니하얏다 그리하야 그는말하기를 우주향을스스로 자랑하는 독일군의『스파이홍』에도『아라스、佛보아』만큼 숙달하고 도량잇고당력잇는 랭정(冷靜)한정객을가진자는하나토업섯다 궐녀는 엇더한어려운일에거나 또는 엇더한위운일이거나를말할것업시 한번사용한『트릭크』(誘)는 결단코 두번사용한일이업섯다 그리하여 몰두번이나 궐녀는 궐녀독특한 신출귀몰한 계략으로 독일포병대(砲兵隊)에파한 중대한보고와 및비밀지도를 공급하얏다 그外에 독일의포병대는 련합군에게 권명을당하기 무릇열여덜번이라고 하얏스니 궐녀의 수단이 얼마나 놀라왓든것을능히추측할수잇다

개조차 練達하야 電鐵網無難飛越

궐녀는 한상가(犬) 한마리를 용하게 길드러가지고 주국(小國) 산의양문(唐紙)에다가 색와가튼 보고문서를 적어서그것의니륩(齒際)에 다가교묘히감추어가지고 독일군의 전선(戰線)을돌파하야불란서군참모에게그보고를 송달식혓다한다 그래서 그개니륩사구니에 서운조그만종이조각에는 한번에 약삼천마디의말 (Word) 을적어서 그속에는 독일군의 배치상황과 병력의다소를 손에들고 보는것가티정밀히보고하얏섯다고하니 속담에「백지장도마조들면낫다」는데량군이 대진하얏슬때 최근의내용을 이만큼만 안다면전쟁에잇서서는 그이상더큰 도움이업슬것이다 이와가튼 역할을한상마타보는 궐녀의개도 나중에는길와 원체잘들고보니 사람이상으로 령리고민하야서 독일군의권극 철조망 (電氣鐵條網) 은 나붉밧줄라다뛰여 넘기보다도 더용이하게 뛰여넘엇다한다 그개가이와가튼 상법으로운반한 비밀문서가 수백통이라한다

單身隻影으로서 七人의士官救出

궐녀는 독일군의 포로수용소(捕虜收容所)에서 일곱명의 백이의(白耳義)사관을구원하야가지고 화란(和蘭)의 국경을넘는대 궐녀는화란농촌의 순진한처너모양으로 차림차림을하야 가지고 두대의마차에다 秋草를가득실는다음 자긔는수건으로 머리에서부터 량편쌈을네리찻서 솔펴동인다음어자대(馭者臺)에올라안자 세칠히도국경을넘어섯다 물론이들마차에 실린 마른풀밧해는 일곱명의백이의사관이 참새가슴모양으로 두근거리는가슴을 고요히 부처잡고 쥐죽은드시 숨어엇드렷섯다 정작국경에 다다라서 국경의방비병은 이것을검사하얏섯다 그러나 궐녀의옷맵시라거나 몸가지는동작의 자연스러움과 티하나업시 가을말모양으로 맑고도 고요히빗나 엄쑥는듯한 두눈동자! 어느것으로 보나 의심을 걸을만한 사르함이 조곰도 업서보엿섯다 그래서 수비병은 탄탄무의하고 다만 총검(銃劍)으로 풀다발만 두어번지굿지굿건드려본다음에그대로이것을 통과식여버렷섯다 그리하여궐녀는 감쪽가치 범의주둥이에서 일곱사람의백이의사관을 구원해내엿다한다 이가치 유명한 『아라스、佛보아』부인은 마츰내 독일측『스파이』의미행(尾行)을바다서 서반아에서 다시독일로가다가 『아라스』서데포되여이십년의류형(流刑)을바다서 『고로퓨!』에서 적소(謫所)로 가다 언도를밧고 가『고로퓨!』에서 병이나서수슬을바든것이 잘못되야 사망하얏다고하니 당대에 령명을날리든세계적녀간첩(女間諜)의말로로는넘우도 그청경이 쓸쓸하엿든모양이다 (계속)

酷暑、畢竟殺人! 運氷人感暑暴死

氷塊안고더워죽은矛盾的慘事

市內最初의苦熱犧牲

시내는 더위로 마치지옥고열시대를 연출하엿다 사람들죽이는 더위! 십팔일최고온도 오후세시에 삼십이도이분! 이날이써에시내영락정(永樂町)이정목정긔운송점인부리경록(李景錄)(四十)은어름을지고 어름집으로 가다가영락정(永樂町)에들어가는 어구에서 온몸을 엄습하는화확다는 더위를 못이기어 돌연히졸도하야곳치료를하엿스나아무효과업시죽고말엇다 이더위에대하야경성측후소원의말을들으면고긔압(高氣壓)은조선일대에 널려잇스며거긔압은만주방면과멀리남양방면에 조금식움지기고 잇으나 어느때 조선으로 올려는지는예측할수업는까닭에적어도이더위는 이삼일간은 더게속할것이다 십팔일은차『메돌』버지 오『메돌』속도의바람이잇는까닭에 온도는다소차젓지마는더위삼십오도의더위나다름이업다십구일도바람은 약간잇슬것이나 더위는 감퇴하지안흘것이라 한다

◇電球竊盜＝부외로량진(鷺梁津)삼백번지최능환(崔應天)의집에모숙하고잇는 구오도(具五道)(二二)는십칠일밤열두시경에 인적이 고요하여진틈을 타서 한강인도교에 설치한전등알을 절취하여 가려는것을 취포하엿다는바 룡산서 에서는금후를 징계하기위하야 엄중한처벌을하리라한다

仁川에入港될 海上展覽會船

금월말에온다고

【仁川】 일본하관시(下關市)의 주최인 케사회해상순회전람회선(展覽會船)은 오는 이십오일에하관을 출발하야 각주요항을거쳐서 삼십일일에 인천에입항할예정이라는데 그배에는 하관시의 생산품을다수 진렬하고 또해산품과 해산가공품등 매품을실고 실업시찰단 약백명이탑승할터이라는데 그중에 학생이약사십명으로 인천에착항한후에는 시내의모든중케사정과 주요공장들을시찰하고 일박한후 대련(大連)으로향하엿다가래월십일일경에하관으로회항할이라한다

早孤餘生의외론몸 姓조차不明튼半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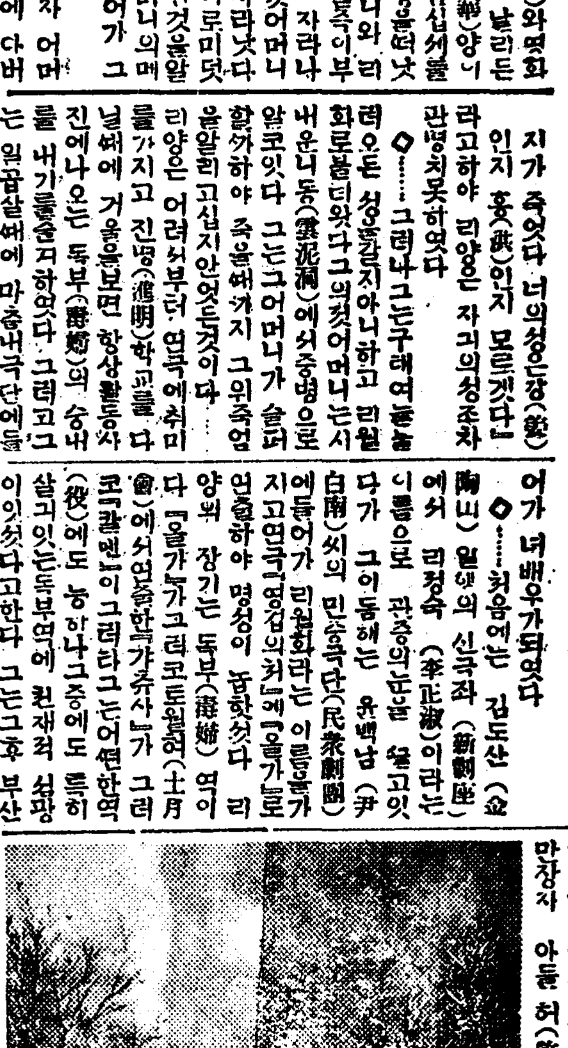
異城에슬어진銀幕의一朶花

女俳優李月華의人生記錄

◇……조선의극계(劇界)와영화계(映畵界)에서 이름을 날리든 『엑트레스』리월화(李月華)양니 시팔나아츰 파란만흔 삼십세를 인생의 일기로하야 세상을떠낫다향은 리보만바와갓거니와 리양은 충청도사람으로 일즉이부모를일코 고모의몸에서 자라나다가 다시아지못하는 첫어머니를따라서 권락도에서 자라낫다 어쩐날그는자긔친어머니로미덧든사람이친어머니가아닌것을알고는칼노풍에품고첫어머니의메누라잇는방으로 달려들어가 그를위협한결과 『너는이세상에나자마자 어머니가죽고 열살되는해에 다버지가 죽엇다 너의성은장(張)인지 홍(洪)인지 모르겟다』라고하야 리양은 자긔의성조차 관명치못하엿다

◇……그러나그는구례여놓놈려오든 성동(城東)지아니하고 리월화로봄뎌왓다그의첫어머니는시내운니동(雲泥洞)에서중병으로 알코잇다 그는그어머니가 슬퍼할까하야 죽을때까지 그위중엄을알리고십지안엇든것이다…… 리양은 어려서부터 엄숙에취미를가지고 진명(進明)학교를 다니든에 거울을보면 항상활동사진에나오는 독부(毒婦)의 승내를내가를순내하엿다 그러고그는 일곱살때에 마충내극단에들어가 녀배우가되엿다

◇……처음에는 김도산(金陶山) 일행의 신극좌(新劇座)에서 리정숙(李正淑)이라는 이름으로 관중의눈물 쌀고잇다가 그이동해는 윤백남(尹白南)씨의 민중극단(民衆劇團)에들어가 리월화라는 이름을가지고연극영업의커』에『올가』로 연출하야 명성이 놉핫섯다 리양의 장기는 독부(毒婦) 역이다『올가』가그리코토월회(土月會)에서연출한『가츄샤』가 그려코『콜렌』이 그려타그는어떤한역(役)에도 능하나그중에도 특히 살고잇는독부역에 천재적 섬광이이섯다고한다 그는그후 부산(釜山)조선키네마에 들어가지나첫(支那町)의비밀에서『권』으로바다의비곡『悲曲』에서『심색시로『쉽바진힘소』의『새주가』로연출하야 조선녀배우의커너지를개척하엿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오년전 오양(五洋)국장의 단장이 되어 가지고 지방 순행을 하다가 실패 하고는 대구 백만장자 아들 허(許)모와 가치 상해(上海)로 멀리건너갓다 그러나 상해에는 쓰라린사랑의 상처가백여이엇다 리양이한때 강원도횡성(橫城)서 기생생활을 하면서 국진히 섬기고마음것 사랑하든 김모! 그에게서 사랑의 배반을 밧고멀리 상해로 방랑생활을시작하엿든것이다 그런까닭에 그의마음에는 허모가 마음에잇지 안핫다 미인월화를따라서 상해로갓든허씨는 만리타향 상해에서자살하고말엇다

◇……독부형의월화! 그는사실로독부형을 조하하엿고 그의미모를 싸고도는만흔 남자를노살하엿다 그러나그는 그러케독부일가그는 눈물을 홀리며하소연하는것이엇다

『나는 불상한계집에다내가상해로간것은 김모를 안볼녀고 간것이다 몸쏨사람! 나쁜남자다! 그러나사랑이 무엇이길래! 나는불상한녀자다마음은착하단다』

◇……그는 사랑을따라서 헤매는 불상한 일개의녀자에 다름업섯다 그리하야그는 상해 『뉴—바빌리온』『댄스홀』에서 리춘래(李春來)라는중국인부호의아들을맛나 사랑을밧구어가지고 입써지내오다가 이번에애인의손에유해(遺骸)까지맛기고말게된것이다

◇사진은 리월화가출연하야처음으로갈채를밧든부활(復活)의한장면

烏籠버슨 「樂界의靑鳥」는 上海「스위트—홈」에

◇……安基永、金顯順兩人消息

조선악단의 명성—— 우리들의 『테너—』가수로 일시 세상에이름을날린 안긔영(安基永)군과 아름다운『소푸라노』의소유자김현순(金顯順)양과의사랑의류랑생활은 악단팬들의 이애기거리가되엇거니와 사랑의 순례를떠난두사람의 목뎍지는 모든사람이궁금하게 생각하는바 최근의 소식은 그들이동양의 국제적도시요『로만쓰』의도시인상해(上海)에서최후의향구를맺건하엿다고 전한다 안긔영군은소년시대에상해에서 학생생활을 지난일이잇는만큼 케이의 고향이라고할것이다 두남녀는 조선을떠나압록강을 넘어먼저 김양의 남형이잇는 북평방면을 거치어 상해로향한듯한데 상해에 도착한후는 그곳교동대학에서 교편을잡고잇는 신국권(申國權)씨 집에 두류하다가 최근에는서가회(徐家滙)에주국사람의셋집을 어더가지고 단두사람의 보금자리를 뭄이엇다고전한다 사랑의 도시상해는 과연그들에게 엇내 살곳이될는지

複雜한大道서 金釵를强奪

警察署나온지二日만에 再犯한前科二犯漢

【大田支局電話】 십팔일오전 열한시경에대전춘일정(春日町) 일정목큰길에서 충남 도청에근무하는김의근(金益根)씨의부인 강옥남(姜玉男)(三一)이라는녀자가철물전에서 물건을 흥정하든중을연히 창한한명이 뜻밧게뛰여들며 머리쪽에씨른 금비녀를 강탈하야가지고 뗴마츰 대낫이라다수한 통행인이 복잡하게왕래하는큰길거리를 거치새 업시 도주하는것을 피해자의 비단을씻는듯한 비명성에한양려관(漢陽旅館)십부를하는사람이 용감히또차가서 체포하얏는데 범인은전과 이범으로 주소가일정치 아니한황만동(黃萬童)(二九)임을 자백하얏다 범인은 역시모사건으로 경찰에구금되엇다가 석방되지 이틀밧게아니되는데 또한 그와가튼범행을한것이라한다

現代組織痛罵

『혁명은부처의대자대비』

血盟團의續行公判

【電通東京十七日發】 오전십일시십분에 잠시휴게하엿든 혈맹단공판은 동십일시반에 다시 열고 소소(小沼)의 진술에들어가 피고는이번생산당(生産黨)사건을 알엇는지 몰낫는지그사건의 중심인물 령목선일(鈴木善一)을극구칭찬한후 현재의 타락한 정치조직(政治組織)이일본국민의정당히나아갈길을 막는큰돌이다 우리는 국가의암종(癌腫)을 낫게할명의(名醫)다라고 호어한후 『혁명은 부처의 대자대비와일반이라』고력설하엿고오후한시에 폐정하엿는데 다음공판은십구일이다

大塚氏懲役二年

삼년집행유예

【電通東京十八日發】 지난십삼일공판에서 일학구(一學究)로서 서재에도라간다고 맹서하엿으나 상과대학 죄회의책임이 가볍지안타하야 증역사년을 구형한 비상시공산당의『섹파』(동정자)원상과 대학교수대총금지조(大塚金之助)씨는 십팔일오전열한시 십오분에 동경지방재판소 조(潮)재판장으로부터 증역이년의 삼년간집행유예의 판결을언도하엿다

電車中에生女

모녀가모다건전

시내림정(林町)리응모(李應模)집에잇는 곽성녀(郭姓女)(三○)는 십칠일오후일곱시반에 장충단(奬忠壇)에서 전차를타고 가는새에 태긔가 동하기시작하야 전차가 황금정(黃金町) 칠정목에 정류하엿슬때에 계집애를나엇는데 모녀가 다건전하다고한다

◇鐵道警備演習 제칠십팔(第七十八)칠십구량련대(兩聯隊)에서는 서로매년거행하는 철도경비연습(鐵道警備演習)은 금년는 제칠십팔련대가 당번이되여오는 이십일일 실시(實施)하기로되엿다

自殺·溺死·誤死

고열에잡답하죽엄소식

◇ 경긔도 리천군설성면(利川郡雪星面) 사람으로 부내현커동(峴底洞)이번지의일호 리달성(李達成)의여방에서 여행상을하고 지내든김치선(金致善)(四○)은그가 거처하는집들보(樑)에 두루막이끈으로 목을매여 자살한것을 십팔일오전두시경에 발견하고 령천(靈泉)파출소로 급보하얏슴으로 경관이 현장에급행하야 조사한결과 자살임이틀림업스며 그의 가진물건은사대문우편국에 저금한커금통장(현재삼십삼원남아잇슴)한벌과 안경한개가 잇섯다한다 죽은원인은그는 소화오년부터 현주장소에와서 엿장사를하고 지내오든중 소화오년부터폐병(肺病)에 걸려서 이날까지 신고하여오든터인데 최근에와서는병이점점더해감으로 세상을 비관하고죽은것인듯하다한다

◇ 고양군중면백석리(高陽郡中面白石里)편흥화(片興華)의딸 옥순(玉順)(九)은 십륙일 오후두시에 우물에물을길러가서 아모리기다려도 도라오지 안흠으로 옥순의 할머니 성씨(成氏)가 우물에가서보니 물에 써커죽어잇는것을 발견하얏다는데 어린아이가 무거운 두두박으로 물을 푸다가 힘이부족하야 그릇엇놀에 떠러저 죽은모양이라한다

◇ 고양군 지도면행주외리(高陽郡知道面幸州外里)김자근석(金自斤石)(三二)은 십륙일오후다섯시에 자긔집에서 소주를만히먹고또 게속하야 소주를 마시서 역시소주를 잔득먹고서몸에서열이나서 견듸지 못하게되야 일곱시 오십분에 목욕하려배를타고 강으로나가다가 취한바람에 그릇강물에떠러저서 무참히물에 싸저죽엇다한다

◇ 부내본정사정목(本町四丁目)백오십일번디리갑수(李甲秀)의세재아들세창(世昌)(七)은 십륙일 오후 한시경에 룡산(龍山)발전소앞헤서 수영하다가 싸저죽엇는바 시체는십칠일 아츰일곱시에이르러서야 건지엇다

生產黨秘藏의 日本刀를又押收

東京서또五十一口를

【電通東京十八日發】 경시청에서는 십칠일밤 정강현이동온천(靜岡縣伊東溫泉)에서생산당의 잔당일파가 체포되고그들의 공술로 혹긔가 동경에온바도여잇는것이 판명되엿슴으로 십칠일밤부터 십팔일새까지에 큰활동을한결과 동경일본교구(日本橋區)모처에서 일본도(日本刀)오십일구를압수하얏다

市內各普校의 夏期體育實施

시내각보통학교에서는 여름방학동안 삼사일 또는오륙일간식 각각사외에 장소를선정하야 그장소에서 유희、창가、체조、동화수영가튼것을하야 아동의체육발달을 도모하기로 하엿다는바 아도용동다리고 나가는장소는 청량리(淸凉里) 한강(漢江)세검정(洗劍亭)백운사(白雲寺)등긔부가 시내의뉘삼을버서난 신선한교외라고한다

포機莫府着發

동으로、동으로

【聯合莫斯科十七日發】 십칠일오전여섯시 사십오분에『케니히스베르히』를떠난『포스트』씨는 십칠일 오후두시이십분『모스크바』에 무사히도착하엿는데 불과두시간 오십이분을쉬이고『모스크바』시간오후다섯시십이분에『모스크바』의『중앙비행장』을 떠나일로『노보시빌스크』로향하엿다

和 十九日부터 廿三日까지

書籍三萬冊均一大廉賣

書籍部大擴張을압두고 東京出版優良書籍大廉賣

廉賣書籍種目 (全部新本)

學生參考書·小說·美術書·經濟書·法律書·思想書·辭書·全集·地歷書·宗敎書·哲學書·工業書·오도기·家庭叢書等

西舘三層에서

和信 京城·鍾路

家庭

◇納涼◇ 5

洗劍亭=서울의 창의문을지나서 문밧그로 나아가게되면 그곳에는 농금밧이잇서서 여름에 손님들 씻븐아니라 자문들 지나서 한참가게되면 줄줄흐르는 시냇물 시냇물속에 옷숙소는바우우에 청자가한나잇스니 이곳이즉세검정(洗劍亭)이올시다 세검정에 올나호리든형을 식킨후 시냇물에 드러가서 물속사람이되면 산복터위도 간곳몰나。

水泳講演速記 (3)

물에따라서 수영방법이다르다

◇수영에는여러가지종류가잇서

普成高普敎員 趙瑛河

이러한 약간의준비가잇슨다음에는 수영의실제로들어가야할터인데 수영에잇서서 그종목은 이에멧시간을두고 이야기한대도 못이안날만큼만흔것입니다

물결이 조곰도날지안는못(풀)이나 못(池)가운데서 하는것과 바다에서 하는것과또는강(江)에서하는것이 모다그방법이달른것으로 적어도 그종류는이삼십종이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모다말할수는업는것임으로 세계에서 흔히만히쓰는 공통된 멧가지종류만을이야기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서 물에들어가는사람은 쓸데업시물을무서워하는일이 적지안슴니다 더욱이

조선에서는 녯날부터 물귀신이니 무어니하야 물을 두려워하는선입관(先入觀)이잇기때문에 더한것입니다

사실에잇서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도순조럽지못하고 물에저항때문에 몸이자유롭지못함으로 무서운마음을내이는것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런물을두려워하는생각을 먼저내버리야할것입니다

그럼으로 처음에는 물에들어갈때에심호흡(深呼吸)을하고 눈을감을것입니다 물속에서눈을뜨면광선의굴절(屈折)로 적은물건도커보힘으로 두려움을느기는때가잇는것이기때문입니다

그리하야 맨처음에는 엿튼곳에서 땅에팔을집고 다리로철부덕철부덕물장구를치기를하여야합니다 이것을『싸다』식이라고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아오리』식이라고 하야 물속에서 개고리헤엄칠때의다리놀리듯하는 동작을만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할것은물에서 숨쉬질을하기를 배워이것을것칙업시 안심하고하도록하고그리고는 물을팔우리는동작을할것입니다 그리하야조선에서속담으로개헤엄을 하게만큼되도록누력하여야합니다

그래 이러한것이 그리힘안들게할수잇게되면 그다음에는 횡영(橫泳)이란것을배웁니다이것은 모로누어서헤엄치는것이데이것은물살이쎈곳에서 가장적당한 방법입니다 모로 눕기때문에비교적 입의위치가놉하짐으로호흡이편한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평영(平泳)이며 것인데 이것은 학리적으로보나 실제적으로보나헤엄으로서 가장리상적의것입니다

人形의 집을나와서

【一名 노라의後日譚】 【52】

蔡萬植 作 吉鎭燮 畫

끈치지아니하는것(3)

이날은공교로히 기분이 조치못하든 차이라 그것이 노ㅣ라에게 적지아니 격동을준것이다

그는 엇더케해서 왓는지몰으게 열에뜬사람처럼 정신이업시 게동집에다달엇다 문압헤 이럭거린채가 노히것도알지못하엿다

짓처든 대문을 밀어제치고 안마당으로 들어서니 집에잇지아니한줄 알엇든 현이 의외에 대들에 서서잇다 방금들어왓는지 모자도 벗지아니하고 서서 악가 혜경이가보앗든 간호부와 이야기를하고잇다

노ㅣ라는 못춤하고 발을멈추엇다

현의 얼굴에는 놀나움과깃버하는빗치 숨길수업시 나타낫다 그러나 엄숙한 태도는 곳처지 아니하엿다

그러자 유모가 면지음 노ㅣ라를보고 버선발로 뛰여내려온다

『앗씨!』

석모와 어멈도 모다 뛰어나와 노ㅣ라를 둘너싼다

노ㅣ라는 반가워하는 그들에게 별로 말도아니하고 다만 유모더려

『송이아기 어데잇나?』

하고 물엇다

『안방에요』

노ㅣ라는 현에게 쏘놓한외면을하고 마루로 올나가 안방미다지를 사르르 열엇다더운기운이 훅근 얼굴을 쓰친다

송이는 혜경이가 말한대로 눈을 억감고 누어잇다 노ㅣ라는 그입헤 조용히안저잠을 자나하고 숨소리를 들어보앗다 자지는 아니하엿다

『아가 송아』

물으는 소리가 떠려지기도전에 송이는 눈을 번적떳다

『엄마』

한마듸 불으고 그는 힘엽는팔을 들려한다 안기자는 뜻이다

노ㅣ라는 송이를안엇다 싸뜻히 뜨는으로 깃분듯이 그는 어머니를 바라본다

몸이 성할때가트면 별 새살을 다하엿슬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만 눈하나로 반가운인사를 할뿐 아모말도 하지못한다

잠시 그는 어머니를 보고잇더니 그것도 괴로운듯이눈을 스르르 감는다 그얼굴이 앗가와는 달려 안심하고 마음을 노은듯하다

노ㅣ라는 비로소 방안에인기척이 잇는것을알고 고개를들엇다

유모와 간호부가 윗목으로빗겨서서 잇는것이다

유모는 그동안 어린아이들을 맛든 책임이 잇는지라 자긔의 잘못으로 아이가 병이난줄로 아는지 근심스런 얼굴로 우지람을 기다리고 이다

『먹이기는 무얼먹이나?』

노ㅣ라는 보드랍게 유모더려 물엇다

『미음을 쑤기는 하지만 아기가 통히 먹질아니해요』

노ㅣ라는 송이를 굽어다보앗다 송이는 또 눈을떠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역시 안심한듯이 눈을감는다

『먹잔는것은 괜찬타고 선생님이 그리세요』

간호부가 비로소 말을그닷는다

『어느선생님이보시는데요?』

『중케병원의선생님이세요』

중케병원의 오씨라면 소아과의 권위다 그것만은 노ㅣ라도 한마음 노히는듯하엿다

『과히 걱정마세요 선생님도경과가 아주 조타구 그러시니깐……이대로만가면 한삼사일만 지나면 열도 내리구 별일 업스리라구 그리세요』

노ㅣ라는 혜경이에게서 듯든바와는 마음이 만이 노엿다 그는실상 송이가 알는다는말에 놀내엇든것도 사실이엇지만 그것보담도 엄마!불으며 눈을떳다가 실망하드란그말에 그만 격동을바덧섯든것이다

『수고만히 하셧소』

노ㅣ라는 간호부에게 치하를하엿다 미상불 눈에아니보이는 의사보담도 간호부가 송이의 병을 나수어주는상만 십혓든것이다

『아이구 원! 케야무슨……』

송이는 잠을 삭삭잔다 잠이 쌔이지 아니하게 조용히자리에 내려뉘이고 다시한번얼굴을 굽어다보앗다

박게서는 현이 무어라고 연태 떠드는소리가 들닌다ㅡ성이나서 떠드는것이 아니라ㅡ

七月十九日(水) (波長四九二米)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二、洗濊歌 河弄珠 鼓手 池龍九
◇同〇時四〇分 뉴ㅡ스
◇同二時 趣味講座 바다이야기(三) 禮○
◇同四時 뉴ㅡ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話 靑개고리 金鳳鉉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天幕生活하는法(三) 李亨雨
◇同七時 뉴ㅡ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家庭講話 家庭敎育과婦人의責任(二) 宋今璇
◇同八時 (B)少女歌劇 喜歌劇『매맛는醫師』

岸田辰彌作 山內匡二作曲 寶塚少女歌劇星組生徒 伴奏寶塚오ㅡ케스트라 音樂指揮 高木和夫

配役 산베로……園井惠子 비오라……貫玉代 니코라……山路靜香 싸ㅡ레……千村克子 레오노라……藤花히사이 안셀모……泉川美香子 헬비ㅡ노……春日野八千代 外村의魔女 漁夫 女多數 下

◇同八時四〇分 俗謠 一、遊山歌 二、[illegible] 三、[illegible] 四、[illegible] 李暎山紅
◇同九時 連續古談 陰影의將軍(三) 朴寅成
◇同九時三〇分 (A)時報 氣象通報 뉴ㅡ스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順序

七月十九日(水曜) (波長三三三米)

▲午前六時 (A) ラヂオ體操 ▲同六時三〇分 (A)基礎英語講座 (四十回)▶午後〇時五分 マンドリン三重奏ご獨奏 ▲同二時 趣味講座 海で拾つた話 ▲同六時 唱歌 佐賀高等學校生徒 ▲同六時二五分(A)ことばの講座 假名遣ひに就て ▲同七時三〇分 (C) 講演 ▲同八時四〇分 (B) 端唄 ▲同九時(C)尾張音頭

◇明日順序◇

七月二十日(木曜) (波長四九二米)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 日用品時勢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歌詞 ▲同〇時四〇分 뉴ㅡ스 ▲同二時 衛生講座 安產과그病理(一) 李在崑 ▲同四時 뉴ㅡ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獨唱 王道 피아노 趙信淑 ▲同六時二五分 農業講座 稻作改良에對하야(二) 金雄斑 ▲同七時 뉴ㅡ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家庭講座 家庭敎育과婦人의責任(三) 宋今璇 ▲同八時(A) 獨唱 新交響樂團練習所로부터中繼ㅡ永井郁子 ▶同八時三〇分 伽倻琴倂唱 吳太石 鼓手 韓成俊 ▲同九時 漫曲 一、萬福宮打鈴 二、녀너노리 朴春載 金興烈 ▲同九時三〇分(A)時報 氣象通報 뉴ㅡ스 翌日프로그람發表

婦人俱樂部

八月號 三大附錄つき

第一附錄 婦人手紙文全集

現代の文壇、歌壇、詩壇の大家が心血を注いで執筆された今迄にない手紙大全集

これ一册あれば、どんな場合でもスラくと手紙が書けて、便利重寶此上ありません

(この豪華の中に二册一緒に入れて愛讀者全部に差上げます。)

大內容 ▲年賀狀一切 ▲お祝の手紙一切 ▲お見舞の手紙一切 ▲招待の手紙一切 ▲勸誘の手紙一切 ▲贈物に添へる手紙一切 ▲お禮の手紙一切 ▲通知の手紙一切 ▲紹介の手紙一切 ▲お願ひの手紙一切 ▲問合せの手紙一切 ▲註文の手紙一切 ▲催促の手紙一切 ▲お斷りの手紙一切 ▲お詫びの手紙一切 ▲相談の手紙一切 ▲慰めの手紙一切 ▲激勵の手紙一切 ▲忠告の手紙一切 ▲お悔みの手紙一切 ▲近況を知らす手紙一切 ▲趣味の手紙一切 ▲商人向各項毎に斯界の第一人者八重[illegible]先生の親切な說明があります

第二附錄 手紙用語 くづし字辭典

手紙上手になりたい方の絕好の御手本です。これさへあれば、どんな場合の手紙でもその用語、文字のくづし方が、よく分つて大變便利です。執筆者の松本芳翠先生は有名な書道の先生、この御手本で習へば文字も上手になつて御婦人方の品位が高まります。

第三附錄 凸凹黑兵衛

田河水泡先生の傑作漫畫でお子樣方大喜びになります

大懸賞 高級化粧品組合せ 二千個贈呈

謎の殿堂トラピスト修道院訪問記 今迄絕對に見られなかつた寫眞と記事!! 鈴蘭の花咲く函館郊外湯の川の修道院の神秘は、始めて發表された。恰もその日、救ひを求めて來た可憐の少女、入院した令孃の爲めに祈りを捧げる某名流夫人とのめぐり逢ひ等々、二重と得難き大特種

夫婦協力廿年竹內茂代博士成功物語 妻として母としての上にこの大成功 萬人感動の告白

繼母に叛いた私の悔悟感謝の手記

お金に可愛がられる法十二ヶ條

素人が始めた商賣の苦心失敗談

月經痛と便秘を治す新法公開

水蟲、たむし、あせもの夏の皮膚病の手當法

可愛い子供のいたづら着六種 …タオルや浴衣地で出來る— 衛生的な新型六種、親切な說明と圖解つき、お試し下さい。

特輯 眞夏のお料理と飮み物五十種 ○涼しく家族の喜ぶお惣菜○經濟で客向きにもなるお惣菜○食慾を進めるお惣菜○ビールのおつまみ物○東京一流フルーツパーラーで教はつた冷い飮み物等々が、手近な材料で出來ます。お試し下さい

全國代表美人寫眞畫報 ▲名流夫人の日燒止め日燒治しの方法 ▲脂肪性、汗性の人の夏のお化粧法 ▲逝きし愛兒糸子を偲ぶ……橫瀨多喜 ▲重寶で着心地よい夏向長襦袢作方 ▲鳴く蟲の飼ひ方、育て方……木村小舟 ▲簡單に手際よく出來る家庭シミ拔法 ▲食鹽湯の含嗽で扁桃腺を治した經驗

夏から秋にかけて子供を病氣させぬ座談會 …育兒について經驗深い女醫、敎育者、名流夫人が、豫防法手當法から、夏を利用して丈夫にする法等を細かに發表した有益な記事。是非御讀下さい。

數千人の難病を救つた松酒療法

日活の明星 花井蘭子 ロマンス

芳紀正に十六、新生『日活』に燦爛と輝く唯一のスター花井蘭子! 見よ! この榮譽を得る迄の、父子共に艱難辛苦の大奮鬪大精進を! 稀に見る『花形物語』。

純情小說 女の友情 吉屋信子 …愛讀者諸嬢に一大旋風を捲起しつゝある評判小說。波瀾又極りなし。

▲戀愛小說 明麗 花 菊池寛 ▲戀愛小說 月よりの使者 久米正雄 岩田專太郎畫 ▲時代小說 紅繪草紙……佐々木味津三 須藤重畫 ▲ユーモア小說 愉快な溜息……サトウ・ハチロー ▲エノケンの『モダン彌次喜多道中記』 ▲諧謔小說 大問題小問題……佐々木邦 ▲芝居物語 重の井子別れ……佐藤惣之助

男のアラ女のアラ漫談試合 …久米正雄氏の審判で、名論、奇論百出の一寸變つた面白い讀物です。

わが子に今日の評判を取らせる迄 …映畫の及川道子孃、水泳の小池禮三君、[illegible]、尾口恒男君の父母が語られた、この親心の有難さを御讀下さい。

定價五十錢 送料二錢 東京本郷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三九三〇 品切の節は本社へ直接御注文下さい

農樂團끼리衝突 重輕傷者近廿名

動機는남의陣營無視 忠州警察大活動

【忠州】 지난십륙일오후두시경 충주군금가면매하리(忠州郡金加面每下里)에서는그동리농악단과 동면월상리(同面月上里)농악단사이에 대격투가이러나일시전장(戰場)상태를이루고 부상자십오명을내여방금충주경찰은비상소집을하는등대활동을하는중이라는데 그충돌된원인은 지난십륙일오후두시경 권긔월상리(月上里)농악단일행이 동매하리로논을매러 매하리농악단의 농긔(農旗)세운 압을통과하든중 권긔매하리측에서는 남의진영(陣營)을 무례히지나가다고 쌍방에싸홈이니러나서 맛침내 그와가튼악결과를내인것이라는바 부상자십오명은 방금충주병원(忠州病院)에서 치료를밧고잇는중이라하며 그부상된정도는최고약륙칠주간 최하는모다삼주일이상치료를바더야할 중상이라고한다

鐘을울려 群衆集合 衝突當時光景

별항보도의 충주군 금가면매하리에서 농악단 충돌사건이발생하야 부상자십오명을 내엿다는사실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이제그격투광경을 부상자들 측으로늣어보면 권긔매하리 측에서는쌍방에 싸홈이일게되자 곳곧처례배당에 달닌 신호종(信號鐘)을흔드러백여명이나 되는군중을 집합하야 곤봉(棍棒)기타농구(農具)를 무긔로 공격을하엿다는데 권긔월상리 측에서는마츰 무긔라고는 아모것도가진것이 업섯든관계상 할수업시패배(敗北)를당한것이라고한다

一名生命危篤 其他도擧皆가重傷

檢事局活動開始

【忠州】 긔보=지난십륙일오후두시경 충주군 금가면매하리(忠州郡金加面每下里)에서농악단충돌사건이 돌발하야 소관충주경찰이 방금대활동을 하는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십칠일 오후사시부터는 충주검사국(忠州檢事局)에서 즉컴 출마하야 진상을조사하는 중이라하며사건내용에 잇서서 자세한바를드르면 부상한자는매하리측(每下里側)에두명월상리측(月上里側)에십삼명 모다이십이라는데 그중에는 방금생명이 위독하야병원에도 오지못하는 사람도한명이다하며 또그날 권긔월상리사람으로서 농악대에 참가치안은월상리사람들도 중도에 매하리사람들을맛나 마즌사람도다섯합으로 이것을 미루어볼진대 사건의원인은 권긔매하리와월상리 두동리사이에 어떠한원감이 잇섯든것이라고 일반은 추칙한다고한다

九個面民結束 郡廳移轉反對

代表選定上京陳情 長湍郡廳移轉問題

【長湍】 경긔도장단군청(長湍郡廳)은장단역권에서 불과이십리상거되는 군내면읍내리(邑內里)에잇는데 청사(廳舍)가비록 구청사라할지라도재무계(財務係)만은수년전에 신축하야수용력이 충분할뿐더러 군세로보아현재소재지가 적당할뿐더러교통(交通)에 잇서서도읍내(邑內)와역권(驛前)사이를 승합자동차(自働車)가 빈번히 통행하며 기타각선에청긔자동차가통행할으로 불편이업스며 수년이래 읍내주민들의렬성으로 사재(私財)를기우려 제반시설을 진행하는중이며 각종사업에 근로하는터인데 금번종지에 군청이장단역권으로 이전한다하야 읍내주민는물론 장단군내 십개면중구개면민이 동요(動搖)되는모양으로 당국에진정하야 읍내삼백호천여명의생활을그대로유지(維持)케하는것이라는데당국에서는 긔정방침이라하야 진행중임으로 이문제가과연 여하히전개할는지 일반은 매우주목하는중이라한다

前津築港 早速實現陳情

【前津】 함남홍원군전진(前津)은 청어리(鰊魚)어업과오유(鰛油)생산이 왕성한곳으로그년산액이 일백오십만원을 돌파하야 어선이 복주하는 형편이나항구의설비가불완전하야 어업의발전을 저해할뿐아니라 피도가심하야 선박과인축의 피해액이적지안음으로 당지유지제씨는 전진축항긔성회(前津築港期成會)를조직하고 그실현을 위하야활동중이든바 이번에 동긔성회의간부 홍성룡、한경수、리창현(洪性龍、韓成洙、李昌玄)삼씨가마침 원산수산 공진회식에입장한 수적식산국장(穗積殖産局長)을방문하고 축항에대한진정서를제출하엿다고한나

新浦築港 期成會創立

【新浦】 함남신포에서는지난륙월삼십일 신포축항긔성회(新浦築港期成會) 창립총회를열고진정위원두사람을 선거하야 운동자금조달과진정서발송일

자를 결정한후 아래와가티실행위원을 선정하얏다한다

◇實行委員 會長─田淵勳 副會長─李鍾健 倉渾松太郎

實行委員─佐佐木通三郎 柳長煥 布谷國三郎 金秉俊 田邊穆 馬新律 古河茂一郎 金進亨 西村總一 朴南鉉 中瀨哲治 河淵求外十九個里區長

顧問─尹相鶴 一色憲太郎 方義淵 洪仲憲 李圭李 康永 李芭峯 佐佐木一郎 宮原傳九郞 小西豐次 村上義彦 植田吾介 佐藤彦七 朴東璇

安奉沿線에 警察犬을配置

【安東縣】 안봉(安奉)연선에반거하는마소비적단은고량번무를호긔하로 각지에서 도량함으로만철철도부(滿鐵鐵道部)에서는안봉연선의경비원(警備員)사십명중일원하는 일방원즉부터 고려중이든경찰견(警察犬)십오두를선로순찰용(巡察用)으로배비하기로되엿다는데성적여하에딸아서는 다시증원할것은 증배하리라한다

工業의都市 平壤의年工産額

工場總數二百三十餘個所 産額千九百餘萬圓

【平壤】 조선일(朝鮮一)이라는 대공업도시로자처하는 평양부내의 공장수(工場數)와 년생산액(生産額)을 소화칠년도말현재로조사하여보다면공장총수이백삼십이 공장자본금 총액칠천구백삼만 칠천원으로 년산액일천구백만구천원이다 그중에서 중요한것을 들면다음과가튼바 조선사람공장의 생산액은 정미(精米)백구십만원 양말(洋襪)칠십만원고무화(護謨靴)백오십만원등이오일본과 미국재벌이 경영하는 제당(製糖) 사백칠십만원 제분(製粉) 륙십오만원(청주(淸酒)) 륙십만원등이중요지위를점령하고잇다한나

旱魃繼續든 甲山地方喜雨

【惠山】 갑산장백(長白)등지에는 지금으로부터 이십일전부터 비가나리지안어 곡물은거의말너죽을 형태에잇서 농가에서는크게 근심하든바 지난십삼일밤부터 비가나리기 시작하야십사일까지 인속하야 나렷슴으로일반농가에서는 깁버하는 중이라한다

選擧違反事件 體刑、罰金言渡

大邱地方法院에서

【大邱】 긔보=경북도의원선거위반사건의서병화(徐炳和)외륙인에대한 공판은 십칠일오전십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사호법정에서 국부(國部)재판장 주심아래 십(辻)중천(中川)판사와주정(酒井)검사열석으로개정되여국부재판장으로부터좌긔와가튼언도가잇섯다

徐炳和 罰金五十圓 裵正武同三十圓 李起春同三十圓 許東萬同三十圓 李職正同二十圓 金鶴坤懲役六個月 罰金二十圓 白南錫懲役六個月(二年間執行猶豫)

普校訓導一名 卒業生三名檢擧

全南長水郡下에서

【長水】 지난십삼일에전북장수군 계내면 장계공립보통학교훈도량종순(全北長水郡溪內面長溪公立普通學校 訓導梁鍾順)씨를임실경찰서원(任實警察署員)이출장검거하야 임실로다리고갓스며 지난십륙일에는 임실경찰서원과 전북도 경찰부원이 출장하야 권긔장계 공보교를졸업하고 농업에종사하고 잇는계내면송천리(溪內面松泉里) 김우성(金宇城)(二二)과 동면월강리(月崗里)리용엽(李容燁)(二三)등이명을검거하엿는데도내각지의 보통학교훈도가 속속검거된다는 풍설도잇서서일반은 도내모종교원 비밀결사가 발각된것하나안인가한다고한다

羅津港의 電氣點燈遲延

理由는都市計令의未發布

【羅津】 웅긔전긔회사(雄基電氣會社)에서 라진에전등전력을 공급하려고라진에 가영업소(假營業所)를두고협화공업주식회사(協和工業株式會社)에청부시기여 공사를진행하여 이미가입자의집집마다 권선(電線)을가설하는등 모든준비가 완성되엿슴에도 불구하고 웨전긔를보내지안는가하고 일반주민들은 의혹을품고 잇는바 이것은도시계획문제때문에 이처럼 지연되는것이라한다 라진영업소주임 야촌기사(野村技師)는왕방한긔자에게대하여 다음과가티 말한다 모든준비는 다되여잇는데 도(道)에서 자령하기를 도시계획령이 발표되여 시가지구획이되거든 전주(電柱)를 세우라고합니다 만일 도시계획령이 늣게되면 그때에는현재의설계대로 세워도 좃타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에서무슨소식이 잇기를 고대하는중이며일이 지연되야 우리회사는매월 천오백여원의 손해를입고잇습니다

大田에酷暑 各種染病猖獗

【大田】 요사이대전에는혹염이 혹서가 습래하야 화씨구십륙도라는 보기드믄고롱을지여 조금만더 더워지면 교통이두렵을지경이며 울로수의 파운과밤에 우외에서 자는관계로 적리(赤痢)등이매우성행한나

少女誘拐中國人 全州에서도檢擧

嚴重한調査를進行中

【全州】 중국인 조선소녀 유인단검거로 세인의이목을 놀내이고잇는 요지음 전주서(全州署)에서도 차종의범행을취체하기위하야 지난십칠일 중국인남녀칠인과 소녀륙칠인을 검속해노코 유인에대한사실을 조사중이다가 그중녀자일명은 검속한 라는데 불러가소녀륙칠명을 한명은 조선아이인것이 이미판명되엿나는바 전주에도 상당히광범위의 중국인유인단이 잠재하여잇는듯하다하며 당일 호송하엿든소녀도매개가다조선녀자인듯하다하며알홍도할러지는대로 엄벌에처할터이며 소년들은신원이 판명이되는대로 부모에게 돌녀보내리라하는바 그들은 대개이삼세때에 중국에갓다가 십여세되도록거게에 자라나서 조선말을할하지못함으로 조사상매우 곤난하다고한다

眞苽갑으로 短刀亂刺劇

【平壤】 참외갑문제로시비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단도(短刀)를눕고 대난투를하여 쌍방이다가티 중상을당한사건이 평양에서발생햇다 십륙일 오후십이시경 부내수정(壽町)신탄상인(新炭商人)김정길(金貞吉)(三三)과 동정 목공업(木工業)최성학(崔成學)(三?)의량인은 술이취하여 앵정도로(櫻町道路)를 걸어가든중 길가에서 참외를팔자에어더먹는술알고 먹어노코는 참외갑지불문제로 시비가일어나 피차에 단도를휘두르며 난투를하여 각기중상을당한것을 본정파출소원이 검속하여 평양서에 무치한후치료를하고 잇다한다

長淵모히患者 勿驚! 三百名弱

【長淵】 당국에서모루히네중독자에대하야 등록제를 실시하자 숨어잇든중독자들이 나두나두몰려나와서 자연지방에는 모루히네중독자가 매일파가리는어가는 형편인데 이제장연경찰서구내개소에서 최근한 실등록수를늘어보면 지난십사일 현재로 장연에구십명 송천에칠십

명 대탄에칠십명 몽금포에십팔명 총계이백사십팔명이라고 하는데 아직도숨어잇는자가 수백명이나게될모양이라하니 실수는 훨신더만흘것이라고한다

失節한寡婦 産兒卽時壓殺

◇警察에被逮嚴調中

【禮山】 충남예산군대흥면교촌리주영세(忠南禮山郡大興面校村里朱榮世)의 누이 주성녀(朱姓女)(三?)는이십여년전에례산군신양면리모(禮山郡新陽面)의 리모(李某)의 집으로 출가하엿나가불행히 그남편이사망한이후자긔친가에 도라와서 독신생활을하야오든중 엄마전부터 어떤남자와 비밀한정교관계를 맷게되야 잉태중이든바 지난칠월초에남아를 생산한것을 그의친모박로인(朴盤仁)(六?)이가세상의이목을 쉬리어 생산즉시로압살하야 례산군오동면신리공동묘지에 암장한사실이 소관경찰서에 탐지되야가련장에 출장하야 해부한결과압살로 판명되엿스며 범인은방금엄중한취조를 밧고 잇다한다

揮發油爆發로 二名卽死一名重傷

장작에휘발유붓고불부치다가 倉田里서생긴慘事

【平壤】 평양부내 창전리(倉田里)이백팔십오번지 김귀우(金起雨)(二四)는 십륙일오전십일시경살님하는 기생김영파(金英波)가조반을짓고잇는것을 도아주랴고 부억에나아가 휘발유를장작에붓고 불을질너놋는 순간폭발되여 엽헤서잇든 집주인의아들김병훈(金炳勳)(六)은즉사하고 병훈의친모최재현(崔在憲)(四三)과 김귀우는빈사의대화상을당하야 도립의원에서 응급수당을 가하든중김귀우도 절명되고말앗다

車票업는乘客 飛降타가轢死

秋風嶺驛構內에서

【永同】 십륙일오후구시반경에부산(釜山)발경성행기차가추풍령(秋風嶺驛)케이프인는부근에 드러올지음에 차중으로부터 엇던한남자한명이 뛰어나리다가 그롯기차밋흐로 드러가서 즉사하얏다는바 그는 충남대전군외남면대동리리옥칠(忠南大田郡外南面大同里李應七)의 삼남리옥남(李玉男)(二四)으로보수중에승차권이 업는것으로 밀우어보면 어대서승차를 하얏난지자세히알수는업스나 차표가 업시승차하얏다가 정거장부근에 들어오자 역원의눈을피하기 위하

人妻自殺未遂

【平壤】 십칠일오전 두시삼십분경 평양부내상수리(上需里)강긔복(康基福)의처김유복(金有福)(二?)이가신창리대성관(大成館)압흐로강에 뛰여들어자살을 도모하든것을 통행하든 순사가발견구조햇다 강긔복은도박죄로 목하형무소에서 복역중임으로 수입이업는김유복은 곤궁한 생활을하든중 최근에는집안사람에게 식객(食客)대우를 밧게되는 신세를비관하여 드되여 자살을도모한것이라한다

生活難과病苦로 七十老人自殺

楊州雙門里의慘事

【楊州】 지난십오일오전네시반경 양주군로해면쌍문리(楊州郡蘆海面雙門里)에사는 배동경(裵東敬)(七一)은 자긔집 후원에서목을매여 죽은것을 집안식구가발견하엿는데 원인은 나날이부대기는생활란과반신불수의몸을비관하야 결항자살(結項自殺)한것이라한나

夫妻가共謀하고 『가봉』子들慘殺!

녀자는체포、남자는도망 神人共怒할此罪狀

【大田】 달큼한 사랑을 맛보기위하야 개가하여올때에 다리고온 제소생을수건으로 입놀트러막아 죽인잔인 무도한의부애비와친어미가잇다─대전군진잠면교촌리(大田郡鎭岑面校村里)에사는 권요규(權耀圭)(三○)의처 황련이(黃連伊)(三六)는 경북상주(尙州)김모와 가티 살다가 어떤사정으로 권요규와 가티살게되얏는데 두사람의 정은날로깁허가나 한갓꺼리기는것은 황련이가 올때에다리고온 두살먹은전부소생 김홍석(金洪錫)이엿다 이것을항상유감으로 생각하든 이잔인무도한 부부는서로의론한뒤에 지난구일밤 한농리에사는 권요규의 누이의집에서수건으로 홍석의입을 틀러막어죽여가지고 병드러죽은것가티 하야 매장하엿든바 이것이마침내경찰에 알여진배되야 지난십이일에 대전경찰서 사법계주임청(淸)경부가 림(林)의사를 대동하고 현장에출장하야 시체를검증한뒤에 황련이를 체포하야다가 대전서에 류치시켜두고 엄중히취조하는중인데 이소문을 들은련이의 남편권요규는 어느곳으로인지 도망하엿나는바 대전서에서는 정사법주임의 지휘로 범인을엄탐중이라고한나

博物館古物 橫領事件言渡

◇……體刑과罰金으로

【大邱】 전경주박물관소장적 록앙웅(諸鹿央雄)외이인에대한 장물고매 긔장횡령사긔(贓物故買橫領詐欺)사건는 십칠일오전십일시부터 대구지방 법원 제사호법정에서 금부(金部)재판장주심아래에 부옥(釜屋)십(辻)판사와흑뢰(黑瀨)검사립석으로개정되여 재판장으로부터 좌긔와가티언도하엿다

諸鹿央雄 役一年(三年執行猶豫) 罰金 五百圓

金洪大 役六個月(三年執行猶豫) 罰金五十圓

徐永洙 罰金 百圓

羅州郡下에서 一日水戰三件

負傷者모두가重傷 ─告訴提起準備─

【羅州】 십륙일오후칠시경에 나주읍 대정정김형두(羅州邑大正町金炯斗)(三五)는 동읍내북문정에잇는 자긔장인 구학보(具學甫)의논에 물을 대다가 동읍내과원정 리광수(同邑內院町李光洙)(四二)와 그의아우 리달수(李達洙)(三八)과논물때문에언쟁이 생겨서전긔 김형두는무수히구타를 당하엿슴뿐아니라 물

고소준비를한다고한다

水災水組 復舊工事開始

【咸平】 금번대홍수에막대한손해를입은 령남수리조합(靈南水利組合)과도천수리조합(都泉水利組合)에서는 지난십칠일부터 복구공사(復舊工事)를시작하야 급속히진행하고잇다한다

炎熱을틈타 連夜列車盜難

乘客注意肝要

【平壤】 십오일오후십시사십륙분 평양역을 출발한 경성행 제백이호렬차가 십륙일 오전일시삼십분 사리원역(沙里院驛)에도착하엿슬때에 삼등승객 모(某)의 야복포켓트속에 너헛든 현금칠십여원이 간곳이업서서 승무원에게 신고한결과 차도난사건을 필두로 십륙칠양일계속하야 백일이오 륙의각렬차에서 야간에 도난사건이 속출하여 승객이 마음을 노코수면할수업게되엿슴으로 평철당국에서도 승무원에게 특별경계를 명령하여 극력도난을 방지중이라는데 더위에못견데여 옷저고리를 걸어노코잠이 든틈을타서 도적해 가는터임으로 일반승객은 특히주의하기를바란다고한다

巡廻募集은禁止 救濟演劇을準備

朝鮮人青年會主催

【安東縣】 안동현조선인청년회에서는 회원는동이 총출동하야 안동현 시내를네구역으로논아가지고 손수구루마를 끌고다니며 동포의 가정을방문하야의복이나 금전이나 주는대로바더 엿스나 경찰서에서 허락지안음으로 최후로 십칠팔량일밤 공회당에서 남조선수재 연극대회를열기로하고 방금청년회 오락부원(娛樂部員)이십오명은서울서 온 극단연극시장단장문수일(演劇市場團長文秀一)군을 총지도로 매일연습중이라 하며 각본도 특히조흔것을 택하엿다하는바 지금부터 성황이 예긔하는중이라한다

水難에쫏긴 百餘避難民에

뜻깁흔주먹밥의同情 儉岩里住民의美擧

【咸安】 경남 일대의 물란리는 참혹하야 함안군내리수천여재민는 가장집물을 버리고 생명만 보존하야 높흔곳으로 피란하엿스나 먹을것이 업서서기아에 아우성치는소래는 목불견이엿다 그중가야면사거리(伽倻面四巨里)일대의 주민백여명은사방으로 몰려드든 수귀(水鬼)의귀주를 바더굴속을헤치고 삼정가량 상거되는 검암리(儉岩里)에 몰려들엇스나 주령에 굶하야생여사의경에 직면하엿슬때에 그곳주민 리호규(李鎬奎) 리상두(李相斗)에씨는 넉넉지못한 살림사리로 이에뜨거운 눈물을금치못하야 백여피란민에게 하로동안주먹밥을 제공하얏스며 주민일동은 동전(洞錢)을 지출하야하로동안 식사를 제공하는등구제에로력 하엿슴을 이제야세상에알이게되자 일반은 그들의 뜻깁흔 동정에 감사함을마지안는다한다

복어알먹고 卅歲青年自殺

原因은生活難

【長淵】 황해도은률군장련면동부리한순창(黃海道殷栗郡長連面東部里韓順昌)(三四)은 홀로모를모시고 가족사인이하루벌어하루를지내든중근일에는버리할것조차업슬뿐아니라압흐로생활하여나갈길이막연함으로이를비관하고 지난십삼일오전오시경에집안사람이잠든사이에미리부터준비하여가지고다니든복어알을먹고자살하엿다고한다

青少年蹴球大會

三支局後援으로

【長城】 전남장성군내에잇는 조선동아중앙삼지국의 후원을어더 장성운동구락부에서는 조선 십구이십양일에 장성 심상학교 광장에서 제일회 남조선청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데신입금에대하야는 청년삼원 소년일원이라하며 소년의 신장은오척이촌으로 정하고 년령관계는 심판측에서 철저조사한후 가입여부를결정 하리라하며 신입긔일은 팔월십팔일 오후사시까지 라는바 신입장소는 장성구읍김형수(金炯秀)이라고한다

普專庭球團 全州軍과對戰

十九日全州에서

【全州】 경성 보성전문학교(京城普成專門學校)정구선수일동은들ㅣ전주군(全州軍)과대전하기위하야 전주로 왓는데오느

滿洲大博覽會 觀光團을募集

【安東縣】 오는이십삼일부터 개최하는대련시주최의만주대박람회(滿洲大博覽會)를관람하고자 안동상공회의소와 려행구락부가공동주최로 관광단을 모집하고잇다는데 회비는대인 이십원 소인십칠원오십전 이라하며 팔월십삼일안동출발할예정이라한다

구일원주수비대(元守備隊)로부터에서양군의접전이잇슬모양이라고한다

牙山에染病

【牙山】 충남아산군탕정면권곡리(牙山郡湯井面權谷里)에는 전염병(傳染病)이류행한다하야 온양경찰서에서는 지난십이일에 예방소독을행하엿스나 병명에잇서서는 아직자세히 모른다고 한다

地方人事

▲玄俊鎬氏(湖南銀行頭取)十六日發京城에

▲金信錫氏(湖南銀行專務)十八日光州發東來向

▲朴會虎氏(本報淸津支局長)金剛山探勝途中去七月十四日本社外金剛支局來訪

▲李鍾泰氏(本報蔚山支局長)累月間身病呻吟中完快되여지난十四日觀務開始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자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江景支局 位置 江景邑黃金町 電話一四五番 支局長 金星國

靈武支局 位置 咸南線靈武驛前 支局長 康鳳善

醴泉支局 位置 醴泉邑內 支局長 鄭鍾德

謹告

醴泉支局 顧問 金炫鐘 顧問 金碩熙 集金員 鄭鍾球 右와如히新任함

江景支局 顧問 金鍾國 右와如히新任함

靈武支局 記者 康金逢 記者 吳壽鳳 顧問 康溶明 右와如히新任함

安城支局 總務 李範歡 記者 李康華 右와如히新任함

長淵支局 集金員 金五星 右解任함

寧邊支局 記者 金泰熙 右解任함

鏡州支局 記者 李雨 右解任함

今日 十九日午後八時半

京城保育 巡廻音樂大會

△場所 新義州公會堂

後援 朝鮮日報新義州支局

本報支局主催後援事業

長城

青少年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九二十兩日間

△場所 長城尋常小學前廣場

△主催 長城運動俱樂部

△後援 東亞、朝鮮、中央三支局

史話 雲峴宮의봄 30

琴童作 石泉畫

四의一

대비예게는것만 해도 례외인데 주찬의 하사까지 밧는다 하는것은 과연 례외엇다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군가가 할만한 상당한 남여도 갓고잇지 못한 홍선은 자긔에게 얼마만치 호의를 보여주는 영조의 사린남여를 어더다가 타고 대비의 별제에 참행을 한것이엇니 대비의조가 조성하도 배행을 하엿다

대비는 이 이단자(異端者)를 흥미의 눈으로 바라 보앗다 일족이 궁중에서도 들린 홍선의 소문으로서 술잘먹고 투전이나하는 잡기를잘하고 싸홈도 꽤 하며 거리거리를 자유로히 몰아다니며 서인상놈들과 억개를겨우로막걸리라는 하동술을 허름채면서 먹는다는이 이단자는 대비에게 잇서서는 흥미잇는대상이엇다

이러한 이단자에게 대하여 조가 조성하의 소개가또한칭찬하엿다

『한사람뿐 이올시다 포부가 크옵니다 종실에 사람 이만치만 호방하고 뜻이 큰이는 홍선군 한분뿐이 옵니다지금 구름을 못어던지만 구름만엇는날은 능히 하늘로올나갈사람이옵니다 그포부를펼데가업서서 술로서생애를 모호히하고잇습니다』

조성하의 소개는 또한이러하엿다

궁중에서 일족부터 들리든 그소문이 올흔말인지 조카성하의소개가 올흔말인지는 알수가업스나 평범한 인물이아닌것에도 틀림이 업는 모양이엇다

미식 미의(美食美衣)에는부족이 업는 대비엇다 그러나 일족이부터 외로운몸이된 그에게는 인생의 적적함이라는 것이 늘 마음속에 걸리어잇든것이엇다 좀 색채다른 것을보아서 령시로나마 이너무도 단조로운 궁중생활의 권태에서 버서나보고십흔 충동이 늘 잇든것이엇나

김며왕대비 재세시에는 며누리의 구실을 하노라고 한

에도 머리 들어본 예가업섯다 지금은 이 종실의 으뜸 으련의 자리에 올른대비는며구나 초로(初老)의 홍업는몸이라 이 새해다른 이단자를 불러서 하로의 소일을 하려고 한것이엇다

특별히 례외라 하는것을업격히 지키고저하지 안는홍선의 태도는 대비에게는 더욱 자비스러웟다

『재작년 령의정(領議政)댁 생신연이래 이런 만반진찬은 처음이올시다』

나주반(羅州盤)을 옹겨 안고 일변 먹으며 일변 사며 일변 이야기하며 하는홍선은 이런말을하며 하하하하 우섯다

이 방에서 사내의 우슴소리가 울러진지 그몃해런가 이래 감상적인 태인의 노포 우슴소리는 간간 울려원본적이 잇섯지만 우렁찬 사내의─더구나 괴란업는 우슴소리는 울려원본적이업섯다

대비는 이 우렁찬 우슴소리를 미소로서 들엇다

『자 마음썻먹겟습니다 본찬─마음썻만히 잡수세요』

『대비마마에서 하사하신 진시 야인이 례의를 모릅니다 더구나 이년전그해에는 만반진찬을 아페 보기만하고 그만 먹지도못햇습니다 지금생각해도 아서운것을……』

『웨 안자시셧소?』

대비는 미소로서 어려케를 엇다 홍선에게 술을 권하고 잇든 나인이 참다못하여 열굴을 샛쳐아케하며 픽우섯다

『네? 하아 팔사가 궁하니깐 아페 노흔 음식도먹지못하게되옵드다』

대비도 소리를 내여 우섯다 이런명랑한 우슴소리는 근래에 듯기 힘든 일이엇다 이 이단자의 불규한 언행이 엄격한 규측에진저리난 대비의 마음에 마즌것이엇다

홍선은 대비를위하여 二년전에 령의정 김좌근(金左根)의 집에서 만반진찬을 아페 하고는 먹지못한 그 내력을이야기하엿나